

법회안내

한림사(062)375-7600~2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창년법회 매주 금 오후7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아산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초하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림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관음사도교당(0391)43-2985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창년법회 매주 화·목 저녁7시
대학생법회 매주 수 저녁7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아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거사법회 매월2매주 토 오후5시
역사불자법회 매월1일 오후5시

분황사(0561)42-9922

인왕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인사법회 매월8일(음) 오전10시
해인사 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관오사(063)784-3669

다라나도 매월1일 오후8시
신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9시30분
저비도량참법도 매월15일(음) 오후7시30분
생환예일기도 및 참회법회 매월2일(음) 오후7시30분

내원정사(051)424-0691

악사재일법회 매월24일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창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산중기도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천불사(0523)82-1463

화랑기도 매월1일~다음달 22일(음) 오후11시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법회 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 사진과 함께 본사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경전을 머리에 이고 <법성계>를 외며 탑을 도는 정대불사 모습

수계산림등 '3월불사' 풍성

7일부터 시작되는 음력 3월을 기해 전국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다양한 특별 대형법회가 잇달아 열린다.
'3월불사'라고 불리는 이들 법회는 4월 초파일을 눈앞에 두고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는 예비가 간으로서의 의미도 담고 있다.

Table with 3 columns: 사찰, 법 회 명, 일 정. Lists various temples and their activities for the month.

◇전국 '3월불사'

나는 수원-서울간의 1호선 전철을 자주 이용한다. 자리를 잡게되면 긴장이 풀리면서 나른해진다. 한시간 정도의 무료함을 눈을 지그시 감고 염주를 굴리기에 알맞으며 전철이 내는 독특한 소리의 세계에 몰린다.

나의 수행일기

전 재근
다면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이며, 내가 나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우상숭배를 들먹이며 타종교를 흠집 낸다. 제 물건 팔려고 남의 제품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선착순 300명에 한해 참가할 수 있으며 동참금은 6만원. 참가자는 15일 오전 6시30분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집결하여 출발. (02)705-5312~7

13일 경주유적 답사

초등학교 3년이상 대상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오는 13일 어린이들에게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위해 경주지역 신라문화유적지를 직접 답사하여 현장을 체험케하는 어린이 유적답사를 마련했다.

서화지(書畫池)를 출발해 삼릉계(三陵溪)로 내려오는 경주 남산 일주코스로 짜여진 이번 답사는 3학년이상의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1일부터 7일까지 50명 선착순. 회비는 무료. (0561)746-1950, (0561)771-1950

'능엄경' 강의 개설

광명선원 14일~10월까지
부처님의 기본경전중 불교수행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능엄경> 강의를 개설하는 배움터가 있다. 봉선사 포교당인 방배동 광명선원(원장 초격)이 그곳이다. 14

책속 문화·역사향기 만나세요

책방 여시아문 4월1일~30일 기획전
어린이코너 등 7백여종 전시... 사은쿠폰도

개나리 진달래가 만개한 이 봄. 문화와 역사의 향기를 담은 명사들을 만날 수 있는 '책방 여시아문 도서기획 판매전'이 열린다. 그동안 책방 여시아문을 아끼고 사랑해 준 고객 서비

일부 10월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6개월과정으로 송천유교소(중앙승가대)의 강의를 마련한다. (02) 584-1108

선덕사 '환경마당'

생명사상등 4회 강좌
환경문제는 인간생명을 위협할 만큼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단순히 대기, 수질, 쓰레기 등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문제이며, 생활양식의 문제이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인간의 자비행을 설파했다.

이렇게 들었다

한보에서 심미로 이어진 초유의 연쇄 부도사태.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비리의혹사건. 최근 우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같은 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한보·심미의 부도 사태가 눈에 띄는 투자로 인한 빛이 일었더라면 현철씨 사건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월권 행위였다는 점에서 분수를 지키지 못한 지나친 탐욕이 어떤 파국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최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염(念)하고 가난에도 안주(安住)하여 도를 지킴, 오직 지혜 있는 일에만 정진해야 할 것을 안다. <팔대인간경>

이 온갖 증생이 만족할 줄 몰라서 항상 남의 재물을 구해 그릇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저 증생들로 하여금 청정한 신구의업(淸淨意業)의 바른 생활의 도리 속에서 살게 하리라. <화엄경>

만족은 최상의 부귀

건강은 최대의 이익, 만족은 최대의 부(富)다. <보요경>
소욕(少欲)은 최상의 쾌락, 만족은 최상의 부귀다. <전청문경>

온갖 행위중 공덕이 있는 행위는 오직 세속적 욕망을 버리는 일이 뿌리가 되어 생겨난다. <파리문둥이화엄경>

과욕(慳慳)에 적은 것으로 만족해서 많은 것을 탐구치 않고 많은 것을 축적(蓄積)하지 않는다면 축적함이 없으므로 온갖 재앙과 근심에서 멀어진다. <보운경>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 놓고도 만족할 줄 몰라서, 무명의 집도심(瞋動心)으로 늘 남의 것을 침범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적이 많고 죽어서는 악도(惡道)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있는 사람이라면 온갖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니건자경>

괴로운 일이다. 증생이 탐욕에서 허덕이는 저 꼴은!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들이다. 이리하여 즐거움은 적은 반면 괴로움이 많은 것은 당연하며, 지혜있는 자라면 능히 깨닫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다. <정생왕인연경>

저 탐욕스러운 사람은 지구 열녀(熱惱; 큰 괴로움)만 더하게 해 가서, 마치 내비가 등불을 보고 날아들어 그 몸 타는 줄을 모르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증생의 욕망에 집착함이 이러하니라. <제법집요경>

남의 재물에 탐심을 일으키지 않는 자는 후생(後生)에 사람이 되어 부와 즐거움을 얻는다. <태지쇄호경>



“형상타파相아닌相을 보라”

'육신의 열차'에 언제쯤 '탐진치 행상' 안탈까
짜야 내리는 전형적인 상행위이다. 무엇이 우상인지 알고 있는가? 내가 우상의 참 뜻을 알게 된 것은 결보기에 우상처럼 보이는 불교를 알게 된 후이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나는 대학에 입학하여 불교신자인 한 친구를 알게되고 <반야심경>을 읽게되는 귀중한 인연을 맞게되었다. 그리고 10여년 전 화성 신종사의 오성일스님을 만나면

불기 2541(97)년도 제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부설 삼일선원·삼일불교교육원 불교교양특강 수강생모집
1. 강좌안내
2. 수강신청 1997. 3.28 (금) ~4월29일(수)
3. 수강료

제6회 행원문화상 공고
승가교육 및 불교문화 발전을 위하여 불교 학술 및 장화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본 재단에서 제6회 행원문화상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시상부문
2. 신청
3. 제출서류
4. 신청기한 및 발표
5. 심사방법
6. 시상일시 및 장소
7. 기타

우리말 팔리어사전
감수: 원의범
편저: 전재성
전 1350페이지 문법집포함 완간
판매처: 경서원, 여시아문 (기타 취급점 연락바람)
한국불교대학 출판부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481
전화: (0434)32-0108~9 FAX(0434)534-3950

재가불자전문 수행도량
◇이용안내: 각 신행단체들의 수련법회, 개인수행, 신도수련 법회 일반수행인등,
◇편의시설: 도서관, 세미나실, 강의실, 명상실겸 대웅주소
◇특 징: 산세수려하고 소박한 고로쇠나무의 자생지이며 최소경비의 생居鐵川의 古地
두타산 심신수련마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481
전화: (0434)32-0108~9 FAX(0434)534-3950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단위조직 구독 신청
단위조직명 연락처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사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제주지사 064-55-9800
강릉지사 0391-651-9317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대전지사 042-625-1080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안산지사 0345-408-0961
진주지사 0591-747-0106